

지역 소식통

고창군, 산림분야 113명 규모 일자리 사업 추진

고창군이 산림·녹지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총 113명 규모의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숲가꾸기, 산림 재난 대응 등 15개 분야에서 종사할 인력을 채용한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재정 자립을 돕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분야별 채용 인원은 △산불감시원(56명), △산림재난대응단(48명) △숲가꾸기 패트롤(5명) △산림조사원(1명) △산림서비스도우미(2명), △녹지관리원(1명), △산림휴양시설관리원(1명), △하천비탈선 관리인(1명) 등이다.

군은 사업별 운영 시점을 고려해 시작 약 1개월 전부터 순차적으로 모집 공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을 통해 공지 예정이다. 김중신 산림복지과장은 "이번 채용이 청년층과 소외계층에서 자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실시

고창군보건소가 1961년생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 예방 효과가 약 70%에 달하고, 폐렴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약 45~70% 감소시키는 등 1회 접종만으로도 장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65세 이상에게 반드시 권장되는 예방접종이다.

이에 따라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단,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평생 1회에 한해 제공되며, 과거 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보건소 예방접종실(560-875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부안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등 7종 추가... 총 31종 항목 보장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부안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으며 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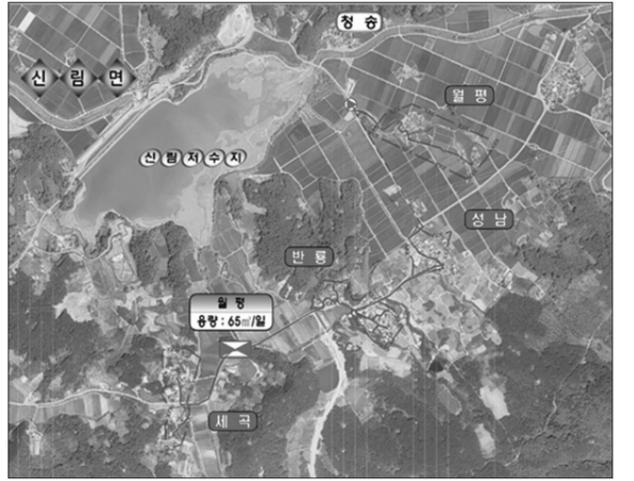
기존에 보장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로톤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등 24종 항목에 새롭게 7종이 추가돼 총 31종 항목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추가된 보장 항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담보, 물놀이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

장애,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개물림 사고상해 후유장애, 개물림 개부딪힘 사고진단비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신청해야 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이 올해 신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월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한다.

## 신림 월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추진

### 고창군 신림면 반동리·세곡리 대상... 2028년까지 진행

고창군이 올해 신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월평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한다.

사업은 고창군 신림면 반동리(반동, 월평), 세곡리(세곡)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2028년까지 진행된다. 사업에는 총 68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52억원, 도비 17억원, 군비 17억원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하루 65㎡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하수관로 4km 설치, 144세대에 대한 배수 설비 구축이

다. 이를 통해 갈곡천과 신림저수지의 수질 개선이 기대된다.

군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마을 설명회를 시작으로, 2027~2028년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생활밀착형 환경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고창군수는 "하수처리구역 확대 수 용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쾌적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 정읍시, 대중교통 무료환승제 도입 '착착'

### 시 교통과, 시내순환버스 277번 노선 직접 탑승... 무료 환승제 성공 위해 현장 점검 나서

정읍시가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시내버스 무료환승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현장으로 나섰다.

시 교통과 직원들은 최근 시내순환버스 277번 노선에 직접 탑승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운영 여건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현장 탑승은 시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운영 실태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무료환승제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시민들의 이용 패턴 변화를 예측하고, 환승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현장 중심의 정책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교통과 직원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반응을 살폈다.

시민들은 배차 간격 조정, 노선 이용의 편의성, 승·하차 시 안전 환경 등 평소 느꼈던 다양한 애로사항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또한, 버스 기사들과의 소통 시간도 가졌다. 시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운수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안전운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도로 여건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이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교통과 관계자는 "대중교통은 시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책상 위에서 하는 행정이 아닌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시내버스 운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무료환승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시내순환버스 노선 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군,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준비 본격화

부안군은 20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2026년 부군수·읍·면장 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주요 성과와 2026년 군정 운영방향을 공유하며 읍·면 현안에 대한 사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오는 28일부터 추진 예정인 2026년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부안의 미래 비전과 주요 성과, 부안형 비라연금 추진 현황을 비롯해 각 읍·면별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정화영 부군수는 읍·면장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인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

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정화영 부군수는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는 단순한 연초 방문이 아니라 지난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군정을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읍·면장들과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해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 접수

### 씩수년도 출생자에 검진비 90% 지원, 내달 27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여성농업인들의 직업병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총 1억 2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성농업인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검진 항목은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골절·손상 위험 △폐활량 △농약 노출에 따른 중독 여부 검사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농작업 관련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 상담도 함께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출생한 51세 이상 80세 이하(1946년 1월 1일 이후~197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올해는 총 647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농업인은 1인당 총 22만원의 검진비 중 90%에 해당하는 19만8,000원을 시에서 지원받게 되며, 본인은 2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중으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서 지정된 정읍아산병원을 통해 상반기 중 검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 확정 후 신속하게 검진을 실시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